

제 79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한일 역사 좌담회를 통한 시민 레벨에서의 한일 문화교류

유주열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경영자문위원

한일외교는 흐렸다 맑았다 하는 일기예보와 같다. 2001 년에 들어선 코이즈미 정권은 흐렸고, 현재 후쿠다 정권은 다소 맑은 상태라고 하겠다.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다. 소프트파워란 죠셉 나이가 주장한 개념으로서 그는 9.11 사태조차도 문화의 문제를 포함한 소프트파워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불거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예전의 무령왕은 한일관계의 가교역할을 한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비슷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외교를 보자면, 이웃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가령 일본이라는 지역을 연구한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한국, 심지어 미국조차도 연구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

한편, 동아시아의 최근 정세를 볼 때, 한국이 향후 일본과의 친교보다는 중국과의 친교에 보다 많이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교류를 보아도 Japan Foundation 을 비롯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활동은 많으며,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인의 수는 비율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와 자유시장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국가체제인데에 반해,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기반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이 중국과의 친교를 일본과의 그것보다 강조하게 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가지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일본 지명 중에 한국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DNA 측면에서도 비슷하다. 두 국가가 힘을 합쳐 속칭 “Rising China”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Q&A>

Q. 일본의 청년층과 노년층의 역사인식의 차이점은?

A. 학교를 예로 든다면 젊은이들은 다른 과목 공부가 바빠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여유가 없다.

노년층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 등의 영향으로 잘못된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다. 한일 역사에 대해 바른 정보를 알려주면, 놀라워한다.

Q. 한중일이 공동체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중국과 일본의 라이벌 의식은 강하다. 이럴 때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EU의 통합에 벨기에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효과적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Q. 일본이 한일역사등에 무지한 것처럼, 반대로 한국이 무지한 부분도 있는가?

A. 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적인 면이나 학교체제 등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많은 한자어 단어들이 일본에서 왔으며, 학교체제가 세계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두 국가만 봄학기 체제라는 면도 그렇다.